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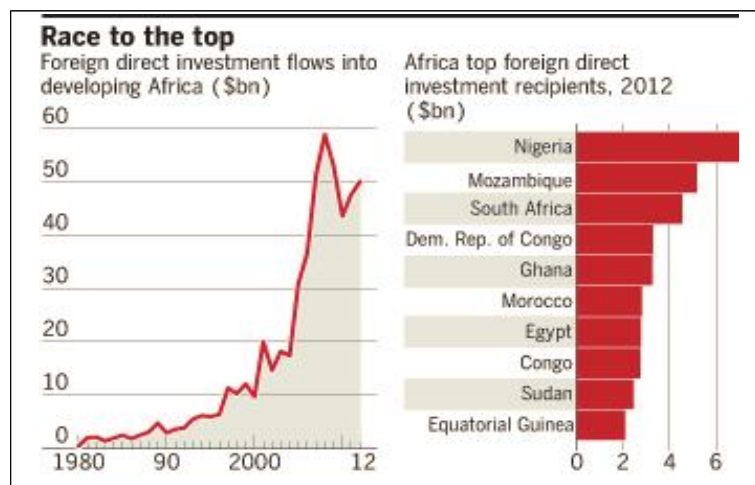
## 아프리카의 해외금융유입(External Financial Flows)동향 및 시사점

작성자 : 장종문 (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)

작성일 : 2013년 09월 06일

- 파이낸셜 타임즈(FT)<sup>1)</sup>에 따르면 최근 아프리카 지역으로 FDI유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모리셔스, 싱가포르, 룩셈부르크 등 금융산업이 발전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투자보장협정,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도 확대되고 있음.
- 2012년 아프리카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(Inward FDI) 규모는 500억 달러로 10년 전의 두 배 수준으로 급증하였고 국가별로는 나이지리아, 모잠비크, 남아프리카공화국, 콩고민주공화국, 가나 등에 순으로 유입되었음.<sup>2)</sup>

그림 1. 아프리카의 FDI 유입액 추이와 FDI 유입 상위 10개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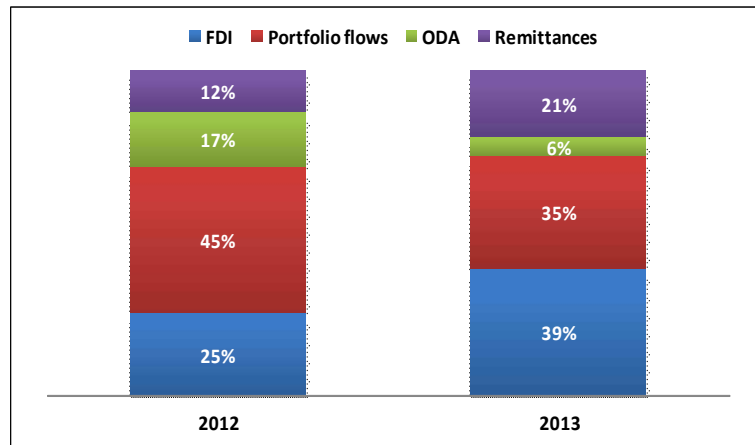
자료: Financial Times(2013.08.19), 재인용

- 아직 동지역의 불안한 정치환경이 해외자금유입의 장애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투자자 보호와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은 동 지역의 투자매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.
- 비단 아프리카 지역의 FDI 유입 뿐만 아니라, 포트폴리오투자, ODA, 해외송금 등을 포함하는 해외금융유입규모 역시 2012년 1,860억 달러 수준에서 2013년 2,030억 달러 수준으로 9%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는 동 지역의 채권,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이어지고 있음.

1) Financial Times (2013.08.19), "Offshore centres race to seal Africa investment tax deals"

2) Unctad(2013), "World Investment Report 2013"

그림 2. 2012~2013년 아프리카의 해외금융유입



자료: African Economic Outlook 2013, 저자 재구성

- 올해 아프리카 지역으로 유입되는 해외금융의 각 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면, FDI와 포트폴리오 투자가 전체 74%로 수준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ODA의 비중은 불과 6% 수준에 그치는 것을 알 수 있음.
- 다시 말해, 최근 아프리카로의 금융유입은 원조의 성격보다는 투자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 흐름과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음.
  - 상기맥락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채발행 붐과 주식시장의 호황<sup>3)</sup>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음.

■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축소 기조와 인도, 동남아시아발 금융위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대륙은 해외자본유입의 증가로 인해 급격한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임

- 아프리카로 유입되는 해외자본이 FDI 형태로 상당부분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장기 성장과 고용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 최근의 상황을 글로벌 불확실성에 따른 대체시장으로의 단기적인 자본이동의 결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함.
  -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축소 기조가 심화되고,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이집트, 남아공, 케냐, 짐바브웨 등의 정치 불안이 지속된다면 현재의 호황은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수도 있음.

〈자료: Financial Times, Unctad, African Economic Outlook 2013〉

3) 아프리카 국가들 중 가나의 증시는 전년대비 65%로 상승하였고, 나이지리아는 29% 상승한 반면, 같은 기간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각각 6.8%와 6.1% 하락한 상황임.